

건강한 도시건축, 천년 건축을 가꾸자

A Healthy Urban Architecture, Architecture that Looks Millennium

황기원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by Hwang Gi-Won

근대화, 그리고 도시화

도시화 현상

구한말의 개화기를 거치면서 한국인의 의지대로 근대화를 이루려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일제의 식민시대를 거치고, 광복 후 격동기를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무척 험난한 과정을 거쳐온 20세기는 우리에게서 이른바 근대화를 달성한 시대이다.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공업화, 사회환경적 도시화를 달성하는 것들이 근대화의 징표인데, 이 중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화이다.

그러면 도시화라는 것은 어떤 변화 현상을 가리키는가? 우선 도시라는 특별한 생활 공간에 사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인데, 사람의 수가 증가하면 결국 기존의 도시가 커지는 현상, 또는 새로운 도시가 생겨난다는 현상을 수반한다. 이렇게 증가하는 도시의 인구는 원래 그 도시에서 출생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그 도시 밖에서 살다가 이주해 온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도시의 발생과 성장은 농촌의 쇠퇴와 소멸을 수반한다. 그러나 도시의 성장은 인구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공업을 기반으로 한 2차 산업의 성장, 상업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3차 산업의 성장을 달성한다. 그래서 도시화는 산업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면서 진행된다.

한국의 급격한 도시화 현상

20세기의 도시화 현상은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산업화를 일찍 달성한 선진국에는 이미 19세기부터 도시화를 시작하였고, 후진국 내지 개발도상국가에는 20세기,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면 한국의 경우는 어떠할까?

전근대시대에 속하는 19세기 말 한국에서 인구가 5천명 이상 되는 도시(대도회라고 불렀다)는 49개로, 여기에 약 57만명이 살았으며 전국 인구에 대비한 도시화율은 7.8% 밖에 되지 않았다. 또 인구 2천5백명 이상 되는 도시를 기준으로 해 보더라도 88개 도시에 약 87만 명이 살았으며 도시화율은 11.8%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큰 한성조차 인구가 19만명, 부산은 9천명 밖에 되지 않았다.

그 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식민 통치하의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나, 광복 당시 도시화율은 약 23%(남한 기준)에 지나지 않았다. 6.25동란과 수복, 부흥기를 거친 1960년에는 도시화율이 39.2%, 경제개발과 국토건설이 가속적으로 진행되던 1966년에는 42.6%에 이르렀고, 1970년에는 드디어 50%를 넘게 되어 전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20세기를 마감하는 90년대 말에는 도시화율이 90%를 넘고 있으니, 20세기초에 전 국민 10명 중 1명 남짓한 사람이 도시에 살았다면 20세기말에는 이것이 역전되어 9명이 도시에 살고 있다.

한국 도시의 양상

이처럼 우리는 20세기를 살아오면서 도시국을 이룩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시화를 달성하였다. 그 뿐 아니라 몇 가지 도시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도시화가 일어났다. 19세기 말 20만 명밖에 되지 않던 서울이 이제는 천만 명이나 사는 거대도시가 되었으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많은 지방도시들도 인구 수 백만 명의 대도시가 되었다.

둘째, 연담화가 일어났다. 성곽 등 뚜렷한 물리적 경계로써 바깥과 확연하게 구별되던 전통적 도시의 형태는 이제 거의 사라지고, 행정구역과는 무관하게 여러 도시들이 서로 붙게 되었다. 이는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셋째, 과밀화가 일어났다. 도시구역은 확산되었지만 인구와 건축 밀도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도시 활동의 강도 역시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는 고층 건물의 증가, 교통량의 증가, 공급 및 배출량의 증가 등 통계 수치를 들지 않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낀다.

넷째, 환경의 질적 저하가 일어났다.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녹지 감소, 하천 복개, 역사문화 유산 인멸, 범죄 증가 등 환경의 질을 저해하는 현상들이 대도시 뿐 아니라 중소도시에도 심각하게 일어났다.

다섯째, 인공적으로 만드는 도시가 생겨났다. 작은 고을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커지면서 도시가 되게도

하였지만, 1960년대의 공업 도시, 1970~80년대의 신시가지, 90년대의 신도시 등 통일된 계획과 집중적 투자를 하여 인공적으로 도시를 만들었다. 게다가 묵은 도시의 일정한 구역을 재개발하면서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대체하는 방식도 보편화되었다.

여섯째, 도시와 농촌을 묶는 이른바 '도농통합 도시'가 생겨났다. 즉 도시와 그 주변의 농촌지역을 통합한 큰 도시-행정단위로 보는-들이 90년대 후반에 여럿 발생하였다.

도시 건축의 등장과 변화

근대 도시의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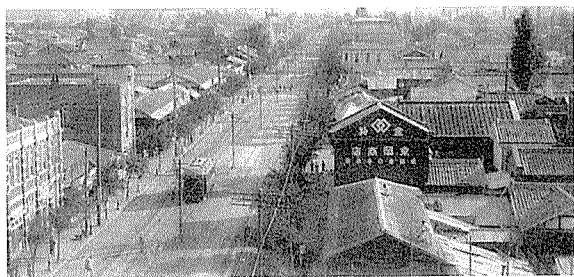
도시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건물이 '도시 건축(Urban Architecture)'은 아니다. 이것은 도시적 기능을 수용하는 건축물인 동시에 도시적 맥락에 적응하는 건축물이다. 또 그것은 특히 근대화 이후 형성된 도시, 현대 도시의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도시가 생겨난 것은 반만년 이전이었다고 하니, 도시 건축의 역사도 그에 따라 대단히 오래 되었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급격한 건축 환경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종전에 볼 수 없던 건축물로 등장한 것을 도시 건축이라고 하여야 한다.

근대화와 도시화에 따라 건축 수요가 양적으로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축의 기능은 불특정한 다종의 평균 수위를 기준으로 삼는 동시에 다양해진 도시적 기능별로 전문화되었다. 또 그러한 단순화 획일화된 기능을 '대량 수용'하는 공간이 보편화되었고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그 공간은 상당히 기계화되었다. 한편 근대 도시계획의 이념에 따라 기능이 공간적으로 분리, 통합되고 도로와 필지를 중심으로 그 공간구조가 짜여지게 되어 가로 건축, 필지 건축이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근대 서양의 도시 및 건축의 양상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전세계적인 전범(典範)이 되었으며, 한국도 그 예외가 아니다.

전근대시대 한국의 도시 건축

앞에서 본 것처럼 19세기말까지 한국에는 근대적, 서구적 관점에서 보는 도시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



일제 시대의 도시건축 : 평양 시가지

이 아니다. 서울을 제외한 많은 도회가 읍성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시내에 해당하는 성내는 관아 위주의 건물들이 주로 자리잡아 일종의 종합행정타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일반 주거도 크게 제약되었을 뿐 아니라 상공업 등 근대도시의 주된 기능은 사회적으로 홀대를 받았기 때문에 근대적 도시 가로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외국과는 달리 기능별로 건축 형태가 달리 분화되어 있지 않아 이른바 한옥이 무슨 기능이든 수용할 수 있는 '범용 건축'으로서 도시, 농촌을 가리지 않고 사용되었다. 또 건축 규모, 형태, 재료에 있어 사회적 계급별로 차등을 두고 있었으나 그 한도 안에서는 능력만큼 지을 수 있었고, 필지의 형상이나 분포, 그리고 도로 체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근대 도시 건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필지 건축이나 가로 건축은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즉 한국에는 근대적 관점의 도시도 존재하지 않았고, 도시건축이라고 할 만한 유형이 별로 성립하지 않았다.

근대화 이후 한국의 도시 건축

20세기의 한국 도시 건축은 유감스럽게도 서양식 도시계획에 일본식 도시 조성방식을 혼용한 도시구조가 전국 도시에 적용되던 일제 강점기에 발생하였다. 구획정리사업이 성행하여 가로로 둘러싸인 가구를 만들고, 그 가구 안에 획일적으로 배치된 필지에 건물을 짓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 도시의 거의 대부분을 이루는 도시공간 구조와 건축 형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등 많은 법규의 제약을 받는 필지 건축과 가로 건축,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설계, 시공하는 건축이 도시 건축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양식 구조, 재료, 형태로 지어지는 '양옥'이 대중을 이루게 된 것은 물론이다. 그러면서 근대화와 도시화가 본격화된 80년대 이후부터 재개발에서 보듯 건축의 수명이 경제성에 의해 판가름되는 건축, 르 꼬르뷔제가 현대 도시의 모범이라고 주장한 바 있듯 가로와 필지를 무시한 단지 건축 내지 슈퍼 블록 건축, 사람보다는 자동차에 의해 지배되는 건축, 여러 기능이 한 건물에 수용되는 복합 건축, 첨단 제어 기능을 갖춘 인텔리전트 건축 등 현대 도시의 건축 현상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전국 각지에 전파되고 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포스트모던 건축이 도시 건축에도 파급되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현상이다.

범용 건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도시 건축을 대표하는 유형은 '범용 건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가로변에 자리잡은 100평 미만의 소필지에 5층 이하로 지으며, 평면이 단순하고 철근 콘크리트와 슬래브 구조를 택하고 있는



20세기 말의 범용 도시건축

것이 공통적 특징이다. 범용(汎用)이라는 말이 가리키듯 무슨 용도든지 세를 내고 입주할 수 있고, 매우 평범한 건물이라서, 한국 도시의 가로변 어디를 가든지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다. 한 건물에 매우 많은 업소가 입주하므로 옥외광고물이 난립하고, 건물의 파사드를 적극적으로, 임의로 변형하므로 도시경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비난받고 있는 것이 이것이다.

이것의 변형은 근린생활시설만 아니고 주거 기능이 함께 수용된 '주상 복합 건물' 일 것인데, 오히려 그 원형에서 우리 도시 건축의 또 다른 유형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층 건물인데, 길에 면한 앞쪽은 점포, 뒤쪽은 주거가 배치된다. 음식점처럼 이 주거 공간은 때때로 점포의 연장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점포 공간은 때때로 주거의 연장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런 건물들은 가로에 면한 입면만 유난히 강조하는 파사드 건축, 언제라도 입주 기능이 바뀌는 한시 건축, 건물의 전면 공지나 보도를 점포의 연장이나 주차 공간으로 쓰는 잠식 건축의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건축 자체에 있기보다는 유동성, 한시성, 영세성, 익명성이 강한 우리 도시의 경제 구조,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으로 이루어진 우리 도시의 공간 구조에 기인하여 발생한다. 이 모두 우리가 경험, 축적한 근대화의 산물 이 아닐 수 없다.

환경 건축의 등장과 변화

근대 도시의 환경과 건축

도시나 건축이나 모두 하나의 분명한 환경이다. 건축은 그 자체가 환경이면서 도시라는 큰 환경을 이루는 기본 요소이다. 그러면서 건축은 도시라는 큰 환경 속에 건립되면서 그 존재 양식에 영향을 받는다.

도시 건축은 그 형성 과정에서 특히 '환경 건축'이라는 또 하나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으니, 그것은 19세기 서양 도시와 건축에서 주창되어 CIAM을 거쳐 오늘날까지 효

능을 잃지 않고 있는 '햇빛', '바람', '푸름'이라는, 건축이 갖 추어야 할 환경의 질로 대변된다. 그래서 위생, 조명, 공기 조절 등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 유지하는 것이 건축 자체의 과제라면 이 건축들이 도시의 공공환경, 또는 이웃한 건축에 부정적 환경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시 차원에서 건축의 과제이다. 이러한 사고는 아득한 옛날부터 있어 왔지만 보다 분명한 조건으로서 건축에 부과된 것은 도시화와 공업화가 동시에 진행된 근대화 이후이다.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19세기 중반에 와서야 비로소 성립되었고, 환경의 의식화된 것은 역설적으로 환경의 질이 무척 나빠져서 인간의 건강은 물론이고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체감하기 시작한 이후이기 때문이다.

근대 한국의 환경 건축

20세기 초 서울의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은 상당히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환경 오염에 대해 공장지대나 연탄 하적장 등지를 제외하면 큰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고, 공장 굴뚝이나 절개지는 오염과 환경 파괴의 상징이 아니라 근대화의 상징이라는 70년대를 살았다. 학계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논하고 국가의 제도에서 환경 관련 법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이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환경을 화두로 삼는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20세기는 매우 급격한 '환경의 의식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건축은 어떠한 적응을 해 왔고 어떤 수준에 와 있을까? 단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직 건축은 건축가는 환경의 의식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건축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 어쩌면 사회 전반의 문제일 것이다.

환경 건축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건축은 건물 자체의 환경을 만드는 작업에는 유능하고 열심이지만 환경에 어울리는 건축을 만드는 작업에는 아직 유능하지 못하고 소홀하다. 건축의 설비를 인텔리전트화하면서 실내 인공환경을 치밀하게 조성하고 통제하는 작업은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나 도시 환경의 질적 유지와 향상을 위해 외부에서 건축에 대해 환경의 질을 높이라는 요구는 그다지 흔쾌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폐기물의 배출 등을 따지는 환경 관련 요구, 자동차 등 교통 발생량과 주차를 따지는 교통 관련 요구, 건물의 형태, 음영, 프라이버시, 조경, 예술품 설치 등을 따지는 경관 관련 요구 등을 건축을 좋게 만드는 요구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태양열이나 지열 활용 등 에너지 효율 및 자원 절약형 건축, 기존 건물의 재순환, 건물 배치, 조경 등 친환경 내지 환경친화적 건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최근 부쩍 높아지고 있다. 또 기술적으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 그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설계